양성연 경력

남, 1997 (27세)

주소 (14309) 경기 광명시 하안로



台 경력

(주)파이오링크 재직중

총 2년 8개월

😭 학력

경북대학교

대학원(석사) 졸업

₩ 희망연봉

회사내규에 따름

□ 포트폴리오

_

나의 스킬

Go) (OpenStack

Kubernetes

Vue.js DevOps

Docker

PaaS

Jenkins

PostgreSQL

경력 총 2년 8개월

2023.11 ~ 재직중

▼ (주)파이오링크 커널2팀·대리/팀원·백엔드/서버개발

- HCI 솔루션 개발
- OpenStack 컴포넌트 코드 분석 및 기능 추가
- libvirt 라이브러리 활용하여 USB 패스쓰루 기능 장착
- Rocky OS 커스텀 애드온 개발
- 솔루션 설치 과정 아키텍쳐 개선
- 솔루션 보안기능인증평가 대응
- 솔루션 CI/CD 환경 관리
- K8S 생태계 기술 분석

2022.05 ~ 2023.11

▼ (주)포위즈시스템 선임연구원

1년 7개월

- 자체 서비스 'CUBE' 기획 및 초기 개발
- K8S Agones 를 활용한 게임 서버 배포 서비스 기획
- PoC 수준의 서비스 초기 풀스택 개발
- ATC+ 사업 3~4년 차 대응
- 프라이빗 클라우드 솔루션 개발
- OpenStack API 활용 관리 웹 페이지 풀스택 개발

퇴사사유 근무조건

2020.03 ~ 2022.04

2년 2개월

(박사 과정)

- 수치상대론 연구
- 오펜하이머-슈나이더 붕괴 계량에서의 빛 궤적 연구
- MCMC, 선형퍼터베이션 이론, 3+1 형식, AMR(Adaptive mesh refinement) 공부
- Fortran 활용하여 수치 계산, openmp 활용
- Numpy 와 Matplotlib 사용하여 데이터 시각화

퇴사사유 업직종 전환

학력 대학원(석사) 졸업

2018.03 ~ 2020.02

경북대학교대학원(석사) 천문대기과학

졸업

학점 4.2/4.3 | 주/야간 주간

2015.03 ~ 2018.02

경북대학교(4년제) 천문대기과학

졸업

학점 4.12/4.3

자기소개서

진행 프로젝트 및 직무 역량

개발 언어로 Go, Python, javascript (vue.js) 를 사용합니다.

오픈스택과 쿠버네티스를 플랫폼 엔지니어 수준으로 다룰 수 있고, API 활용한 추가 기능 개발 등 개발자 수준으로도 다룰 수 있습니다. 특히 오픈스택 쪽은 현 직장에서 소스코드 분석이 필수인 상황입니다. 쿠버네티스 쪽 소스코드 분석도 역시 관심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쿠버네티스 위에 오픈스택 컨트롤러를 올리는 프로젝트에 관심이 생겨 오퍼레이터 패턴 기술을 따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관련한 프로젝트로 현 회사와 직전 회사에서 모두 Private Cloud 관련 솔루션을 개발하였습니다. 포위즈시스템에서는 API 활용 및 플랫폼 관리 페이지 개발에 중점을 두었다면, 파이오링크에서는 폐쇄망 환경에서의 솔루션 자동 배포 및 시스템 설치 구조에 집중 하였습니다.

솔루션 자동배포 항목에서 Rocky OS의 Anaconda installer 코드를 분석해 간단한 애드온과 kickstart 를 추가하여 원하는 형태의 설치 방식을 구현 하였습니다. 이는 솔루션의 보안기능확인서 갱신을 위함으로, kolla-ansible 과 오픈스택 소스코드를 분석해 사내에서 추가한 기능이 많이 머지 된 ubuntu와 wallaby 버전 기반의 소스코드를 rocky 기반 24.01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하였습니다.

더해 자잘한 기능 추가 및 버그 수정, 테스트, 배포 사이클 (CI/CD) 관리 등의 직무도 수행했습니다.

이외에 회사 내외에서 지속적인 기술 역량 확장을 위해 사이드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현재는 마이크로서비스 아키텍처에 도움이 될 수 있을 프로젝트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CNCF 생태계에 관심이 많고, 앞으로도 쿠버네티스 인프라 환경에 직접적인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싶습니다.

전공 설명

대학 대학원 모두 천문대기과학을 전공하였고, 그 중 천문학을 주 전공으로 삼았습니다. 학부생 때는 지구시스템과학부 소속으로 천문학을 제외하고서 지질, 해양, 대기 과목을 교양 수준으로 수강 하였습니다. 또한 물리학을 부전공 하였습니다.

대학원 시절에는 수치상대론과 우주론을 공부하였기에 미적분과 아인슈타인 장방정식에 사용되는 텐서 계산을 많이 진행하였습니다. 그 중 레이 트레이싱와 관련한 연구를 많이 진행하였으며, 석사 연구는 르메트르-톨먼 계량 하에서 빛의 궤적 등을 연구하고 MCMC(Markov chain Monte carlo)를 이용한 파라미터 측정을 진행하였습니다. 박사 과정은 수료를 앞둔 시점에서 자퇴를 하였습니다만, 그 전까지 오펜하이머-슈나이더 붕괴 계량에서의 빛의 궤적을 연구했습니다. 이외에도 우주배경복사, 선형퍼터베이션이론, 3+1형식, AMR(Adaptive mesh refinement) 등등에 대한 연구 주제를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프로그래밍 기술로는 파이썬과 포트란을 사용하였습니다. 파이썬은 주로 numpy와 matplotlib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 데이터의 시각화에 주로 사용하였고, 포트란은 수치해석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짜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포트란과 연계한 openmp 라이브러리를 이용해 간단한 병렬처리 코드를 사용해보았습니다. 주로 미분방정식을 푸는데에 포트란이 사용되었고, 그 중 상미분방정식을 주로 다루었습니다. 박사학위 과정 수료 중 MHD(Magnetohyd rodynamics)를 전공하신 박사님 아래서 편미분 방정식을 다루는 것을 경험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전공 혹은 교양 수준의 머신러닝, 통계학 수업을 여러차례 수강하였습니다.

성격 및 가치관

저는 평소에 내성적이며 수줍음을 많이 타는 성격이지만, 업무에 있어서는 근거 기반의 합리적 방향성을 강하게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 난 삼 년의 시간 동안 여러 프로젝트와 사람들 간에 협력의 기회가 있었고, 그 속에서 저는 아주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했습니다.

이 중 대표적인 경험을 소개 해드리자면, 현 회사의 솔루션 구성 환경 중 아키텍쳐적으로 몹시 비효율 적인 구조가 있었습니다. 호스트 머신 위에 불필요한 가상화 레이어가 중첩으로 존재했던 것인데, 입사 초기부터 해당 구조 필요성에 의문을 품었고, 상사 분들께 이 부분의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여 최종적으로 아키텍 쳐를 변경 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 속에서, 사람들 간의 의견 충돌을 어떻게 조정할 것 인가도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바둑 격언 중에는 "고저장단을 맞춰 포진하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행마에 있어 너무 욕심을 부려도 안 되고 너무 조심스러워도 안 된다는 의미로, 실리와 세력의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실 가상화 레이어 중첩 문제 뿐만 아니라, 소스코드 리팩토링과 기술 스택 변경 등 하고 싶은 게 정말 많았었지만, 너무 급진적인 변화는 리스크가 클 것이라는 상사 분들의 의견을 수용하여 적절한 합의를 찾아가는 과정은 정말 즐거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성장에 정말 목 마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습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 영역에서도 하루가 멀다하고 독특하고 신기한 기술들이 쏟아져 나오는 상황이 너무나 행복합니다. 비전공자 출신으로 아직 알고리즘과 컴퓨터 구조 같은 기반이 연약하지만, 느린 속도로라도 계속 파고 들고 있습니다.

깃허브 주소 및 블로그

깃허브: https://github.com/Larshavin

블로그: https://kubesy.com/